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미 법무부, British Aerospace - Marconi 기업결합 인가

미국 규제당국이 British Aerospace P.L.C.의 영국 General Electric Company P.L.C. 군수산업부문 취득을 인가함으로써 당해 기업결합은 마지막 중대한 장애물을 극복하였다.

British Aerospace사는 영국정부와 체결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미국 관리들과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G.E.C. - 동일한 명칭의 미국회사와는 관계가 없음 - 의 사업부문인 Marconi Electronic Systems사의 70억파운드(110억달러)로의 취득은 12월 2일에 가능해졌다.

이 기업결합은 세계무대에서 주요 업체들과 경쟁할 능력을 갖춘 항공우주 및 군수업체를 만들고자 하는 British Aerospace사 계획의 중요 부분이다. 동 기업은 당해 기업결합이 이번 여름에 완성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규제절차로 인해 지연되어 왔다.

British Aerospace사는 2002년까지

2억7,500만파운드의 비용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ritish Aerospace사는 지난 9월 군수계약에서의 경쟁을 보존하기 위해 기업 내 사업부문의 독립운영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수의 조건을 준수하는 대가로 영국 규제당국으로부터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인가를 얻었다.

British Aerospace사는 당해 기업결합의 완성 후 3년이 지나면 영업권(good will)과 예외항목 공제 이전의 주당 수익이 1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E.C.는 통신 및 기술시스템 시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당해 기업결합이 완성되는 대로 회사명을 Marconi P.L.C.로 변경할 것이다.

■ 1999. 11. 25. The New York Times

미 FTC, 엑슨 - 모빌 기업결합 인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엑슨사와 모빌사간의 800억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이들 두 회사로부터 기록적인 양보를 얻어낸 다음에야 이를 인가함으로써 BP Amoco사와 LA에 기반을 두고 있는 Atlantic

Richfield Co.간의 기업결합에 많은 장애물이 놓일 것임을 암시하였다.

FTC는 엑슨사와 모빌사에 대하여 주주소 및 기타 자산 중 20억달러 규모인 15%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는 엑슨사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정유소와 360개 캘리포니아 지역 주주소 전부가 포함된다. 당해 화해의 결과 캘리포니아의 주주소 시장은 새로운 주요 경쟁자를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들 정유소 및 주주소 시설은 FTC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이 용인할 수 있는 단일 인수자에게 매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주소 시장이 보다 더 소비자친화적이 되도록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Bill Lockyer 법무장관은 말하였다.

엑슨사와 모빌사는 자신들의 기업결합에 부과된 조건을 승낙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당일 거래를 마감하면 공식적으로 엑슨모빌사로 변경되고,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가 된다.

텍사스 주 Irving에 소재하게 될 통합기업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가 되는 엑슨사 회장 Lee Raymond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엑슨모빌사는 최근에 기업결합한 다국적 석유회사들, 그리고 급속히 자국시장 외에서 확장하고 있는 대형 국영 석유회사들

과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양보의 폭이 엑슨사와 모빌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컸지만, 자산 매각규모는 기업결합의 결과 보유하게 될 1380억달러 규모 자산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Raymond 회장은 밝혔다.

엑슨모빌사는 캘리포니아 주, 미국 북동부 및 대서양 연안 중부지역, 텍사스 및 괌에 소재한 2,431개 주유소, 샌프란시스코 근처인 Benicia에 소재한 엑슨사의 정유소, 알래스카 횡단 주요 송유관 지분 3%, 태평양 연안지역의 제트연료 사업부문, 그리고 기타 자산을 매각하여야 한다. 엑슨모빌사는 9개월 내에 이들 자산의 상당부분을 매각하여야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정유소와 주유소에 대하여서는 3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하여 받게 된다.

FTC 위원장인 Robert Pitofsky는 "이번 화해로 인해 경쟁이 보존되고, 소비자들은 부적당하고 반경쟁적인 가격인상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다"라며 자산매각이 없었다면 당해 기업결합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휘발유가격을 상당히 인상시켰을 것이었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불과 7개 업체들이 캘리포니아 주 휘발유의 95%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자산매각으로 인해 엑슨모빌사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 Torrance 지역의 정유소와 712개 모빌사 주유소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및 미국 여타 지역에서 매각되는 주유소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판매업자에게 임대된 것으로서 이

들은 향후 10년간 엑슨사 또는 모빌사의 브랜드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FTC는 작년 British Petroleum사와 Amoco Corp.과의 기업결합과 함께 시작된 석유산업에서의 집중도 증대에 대하여 우려하여 왔으며, "이 산업에서 향후 나타날 기업결합 제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할 것이다"라고 Pitofsky 위원장과 Sheila F. Anthony 위원, Mozell W. Thomson 위원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과거 FTC 재판담당 법률가였으며 현재는 워싱턴 D.C. 소재 법률회사인 Patton, Boggs사에서 반트러스트법을 전문으로 하는 Garret Rasmussen은, 엑슨모빌사의 화해는 FTC 및 여타 연방정부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집행정책이 취해질 것임을 의미한다며 "BP Amoco - Arco 기업결합에 관하여 보면, 이는 분명히 험난한 길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BP Amoco사는 지난 4월 Arco사를 270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대변인을 통하여 "우리의 기업결합 제안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투자회사인 Farnestock & Co.의 에너지 부문 선임분석가인 Fadel Gheit는 캘리포니아 주 휘발유 소매업에서의 Arco사의 우월한 지위로 인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FTC는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들은 일반대중에 대하여 '우리는 일반대중을 약질 대형 석유회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한다."

■ 1999. 12. 1, Los Angeles Times

미 법무부, Infinity - Outdoor 기업결합 인가

미국 법무부는 12월 6일, Infinity Broadcasting사와 Outdoor Systems Inc. 간의 83억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이들이 뉴욕, 뉴올리언즈 및 피닉스의 일정 광고게시판들을 매각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인가하였다.

이들 기업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였으며, 따라서 법무부는 미국 지방법원에 기업결합 원안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화해안도 접수시켰다. 이 화해안은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CBS Corp. 또한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 이는 동기업이 Infinity사의 지분 8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결합이 원안대로 이루어졌다면 뉴욕, 뉴올리언즈 및 피닉스 3개 시장의 옥외광고 - 광고게시판, 지하철 내 광고게시판, 버스 및 버스정류장의 광고간판 - 부문에서 통합된 기업이 지배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게 되어 경쟁이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두 기업은 이들 3개 도시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대다수 광고주들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업체들이라고 정부는 말하였다.

"이러한 자산매각이 없었다면 뉴욕

시, 뉴올리언즈 및 피닉스의 옥외계 시판에 광고를 내고자 하는 광고주는 상당한 경쟁적 대안을 잃게 될 것이었다"라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말하였다.

이들 기업은 적어도 2,530만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일련의 뉴욕 광고게시판들을 매각하는 데 합의하였는데, 이 금액은 Outdoor Systems사가 이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광고게시판 사업에서 기록하고 있는 액수이다. 이들은 또한 Outdoor Systems사의 버스정류장 광고간판이나 지하철 광고사업부문 중 하나를, 만일 이들 기업이 2월까지 두 형태의 광고 모두를 판매하고 있을 경우, 매각하여야 한다.

뉴올리언즈에서는 Infinity사의 버스광고 사업부문 전체를 매각하여야 한다. 피닉스에서는 Infinity사의 버스광고 사업부문 또는 이와 같은 금액의 수익을 올리는 일련의 옥외광고 게시판을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자산매각은 적어도 뉴올리언즈 및 피닉스에서의 Infinity사의 옥외광고 매출액에 상당할 것이다.

Infinity Broadcasting사는 자회사인 TDI Worldwide Inc.가 보유하고 있는 옥외광고자산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시장에서 160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도 소유하고 있다. TDI사의 옥외광고 사업부문은 20개 미국 시장, 영국,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에서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대주주인 CBS사와 마찬가지로 Infinity사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다. Infinity사는 1998년 18억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였으며, CBS사는 1998년 수입

금액이 68억달러였다.

피닉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Outdoor Systems사는 미국 90개 시장에서 옥외광고사업을 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12,000개의 광고게시판을 보유하고 있다. 1998년 동 기업의 매출액은 7억500만달러였다.

■ 1999. 12. 6, The New York Times

**미 법무부,
Vodafone-Bell
Atlantic 기업결합 인가**

영국의 Vodafone AirTouch사와 Bell Atlantic사의 미국 이동전화사업부문을 통합하려는 계획이 미국 법무부에 의해 인가됨으로써 북미 최대의 휴대전화사업자 탄생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금년 9월에 이들 두 대형 전화회사간에 합의된 당해 기업결합은 Vodafone AirTouch사 주주들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완성되지 못한다. 또한 미국의 규제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사업허가의 이전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는 당해 기업결합 계약이 내년도 중반 이전에는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독일의 Mannesmann사에 대하여 1,400억유로화(1,428억달러) 규모의 주식 교부를 통한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Vodafone AirTouch사의 사기를 북돋울 것이다.

이 영국기업은 이미 순수 휴대전화사업자로서는 세계 최대이다. 그러나 동 회사는 Bell Atlantic사와의 기업결

합 중 단지 45%의 지분만을 보유하게 되어, 미국 내 고객들에게는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Vodafone AirTouch사와 미국 합작사들간에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문제들도 있다.

이 새로운 휴대전화 그룹은 현재 Bell Atlantic사와 기업결합 과정에 있는 GTE Corporation의 무선통신 자산이 추가되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24개 시장에서 이들 기업의 사업부문이 중첩되어, 이동전화사업부문을 매각, 교환 내지 이전하여야만 하게 된 것이다.

Bell Atlantic사는 12월 7일, 당해 기업결합이 합의된 이후 자산처분을 모색해 왔으며 중첩되는 시장을 특정하고 다수의 잠재적 자산 구매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Vodafone AirTouch/Bell Atlantic 기업결합은 지난 1월 Vodafone사의 AirTouch사 취득의 직접적 결과이다. 동 기업은 짧은 기간 동안의 인수경쟁에서 Bell Atlantic사를 눌렀다.

주로 미국 동해안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Bell Atlantic사가 AirTouch사와 연관을 맺은 것은 이들 두 회사의 사업영역이 아닌 지역의 상당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투자기업 - PrimeCo Personal Communications - 을 통해서였다.

Bell Atlantic사는 당해 합작투자사업을 계속할 뜻이 없음을 암시하였으며, 이는 두 회사간의 협상을 촉발시켜 결국 9월에 기업결합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GTE사의 이동전화 자산을 포함하면 당해 사업체는 미국 인구의 90%

이상을 포함하는 시장에서 2,100만대의 이동전화와 350만명의 빠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Vodafone사는 12월 7일, 영국, 네덜란드 및 그리스 고객들에게 차세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디딤돌이 될 기술을 내년 1월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에릭슨사가 제공할 범용 통합 라디오 서비스는 기존의 GSM 디지털 전화를 통해 고속 데이터서비스 및 인터넷 접속을 제공할 것이다.

■ 1999. 12. 8, Financial Times

프랑스

프랑스정부, 코카콜라사의 Orangina 사 취득계획 저지

프랑스정부는 11월 24일, 포도주 및 주류 생산업체인 Pernod Ricard사로부터 프랑스 오렌지 청량음료의 선도적 제조업체인 Orangina사를 취득하려는 코카콜라사의 계획을 저지하였다.

이 결정은 관련 회사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당해 기업결합 계획이 음료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어 왔었다.

Pernod사의 주가는 5% 이상 하락하였다. 당해 취득을 지지하는 대가

로 일자리 보장을 얻어내었던 노동조합은 당해 결정을 비난하였다. Orangina사의 직원대표는 당해 저지 결정으로 인해 Pernod사는 Orangina사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여야만 할 것이며, 이는 대규모의 감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Pernod사는 "우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야망이 좌절된 Orangina사의 직원들과 함께 실망하고 있다"고 하였다.

Christian Sautter 재무장관은 이번 인수계획을 저지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독립적 경쟁당국인 경쟁평의회(Conseil de la Concurrence)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동 경쟁당국은 "이번 인수계획은 경쟁을 해할 위험을 증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기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코카콜라, 환타 및 스프라이트 브랜드는 프랑스 청량음료 시장의 60%를 차지한다고 재무성은 밝혔다. 여기에 Orangina사까지 합치면 당해 그룹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70%에 육박하게 될 것이었다. 이 미국 기업은 점포 - 카페, 호텔 및 식당 - 에서 소비되는 청량음료 시장의 9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코카콜라사의 인수 실패는 동 기업의 주요 경쟁회사인 펩시사로부터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Pernod사는 2년 전 펩시사에 Orangina사 인수를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코카콜라사가 50억프랑(8억달러) 규모의 공식적 인수제안을 하였으나 인수가격이 너무 높다고 주장한 1997년 9월, 펩시사

의 관심이 또다시 집중되었다.

코카콜라사의 최종적 제안가격은 47억프랑으로서, 이는 규제당국의 요청에 따라 Orangina사의 유통망을 배제한 후의 가격이다.

펩시사는 프랑스정부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공정경쟁의 옹호자"라고 하였으며, "오늘의 결정은 프랑스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과 공정가격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환영하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카콜라사와 Pernod사는 당해 미국 기업의 수정제안이 규제당국의 우려를 해소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코카콜라사는 Orangina사의 유통망을 10년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었다.

코카콜라사는 실망감을 표시했지만 당해 결정이 "프랑스 소비자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코카콜라사의 대변인인 Rob Baskin은 동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Orangina사 브랜드 취득을 추구할 것 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하였다.

■ 1999. 11. 25, Financial Times

EU

EU, 가격고정 이윤료 8개 철강회사에 9,900만달러 벌금 부과

유럽위원회는 석유 탐사 및 가스 수송에 사용되는 무이음새 철관 시장에서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하였던 가격고정 및 가격조작을 이유로 8개 철강회사에 9,9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들 기업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담합하였었다고 EU 반트러스트 담당위원인 Mario Monti는 12월 8일 성명을 통한 발표에서 "이는 EU의 공정거래 규정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언급하였다.

관련된 회사들은 British Steel사, 일본의 Nippon Steel Corp., Sumitomo Metal Industries Ltd., NKK Corp., Kawasaki Steel Corp., 이탈리아의 Dalmina Spa사, 독일의 Mannesmannrohren Werk AG와 프랑스의 Vallourec SA이다.

Monti 위원은 이들 기업이 "기초제품에 관한 시장에서 전적으로 담합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상당히 엄격한 벌칙이 요구된다. 이러한 행위는 지속적으로 회피되어야 할 범주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벌금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Vallourec사 810만달러, British Steel사 1,260만달러, Dalmine사 1,080만달러, Nippon Steel사, Sumitomo Metal Industries사, NKK사, Kawasaki Steel사 및 Mannesmannrohren Werk사 각각 1,350만달러.

프랑스 및 이탈리아 기업들에 대한 벌금액은 이들이 '사실관계 확립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에 협력하였기 때문에' 감액되었다.

■ 1999. 12. 8, The New York Times

일 본

공취위, LP가스 카르텔 과징금 납부명령 반복심결

택시, 전세자동차용 연료인 LP가스(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을 둘러싼 부당한 카르텔을 이유로 내려진 공정취인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하여 1심 재판에 해당하는 심판에서 다투어 왔던 도쿄무선택시협동조합(도쿄 스키나미(杉並)구)에 대하여 공취위는 11월 12일, 「조합원예의 판매액은 과징금 산정의 대상 외」라는 동 조합의 주장을 인정, 과징금 납부를 명하지 않는 심결을 내렸다. 납부명령의 반복심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결에 따르면, 공취위는 1997년 3월, LP가스의 가격인상폭 등을 매월의 회합에서 결정하여 가격카르텔을 결성하였다고 하여, 도쿄 LP가스공급소협회(도쿄 미나토 구)에 소속된 판매업체 57개 사에 대하여 총액 약 1억 8,300만엔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 도쿄무선택시협동조합을 제외한 56개 사는 이를 납부하였으나, 동 조합은 산정방법 등에 불복하여 심결을 신청하였다.

동 조합은 "판매액의 태반을 점하는 조합원용 판매는 공동구매사업으로서 원가에 공급하고 있어, 도쿄 공급소협회의 위반행위와는 관계없다"

고 주장하였다. 과징금의 금액은 도매업체의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상품의 매출액의 1%로 산정되나, 심판은 조합원용을 「자가소비」로 인정하여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시 산정된 과징금은 납부명령을 내릴 수 없는 55만엔 미만이 되었다.

■ 1999. 11. 13,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방위청 연료담합 관련 석유 11개사에 배제권고

방위청 조달본부(조본)의 연료입찰을 둘러싼 담합사건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11월 17일, 석유도매업체 등 11개사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을 이유로 배제권고를 하였다. 또한 조본 측에도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입찰감독체제를 재검토하고 정보관리의 철저 등 재발방지책을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배제권고를 받은 업체는 코스모석유, 닛세키미츠비시(日石三菱), 소와(昭和)셀석유, 재팬에너지,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 후소(扶桑)석유, 제네럴석유, 키그나스석유, 규슈석유, 다이오(太陽)석유, 다이호공업이다.

공취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11개사는 1995년 4월부터 1998년 9월까지 3년 반의 기간 동안 항공제트연료 등 5개 종류의 연료유에 대한 지정경쟁입찰에서 사전회합에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였고, 수주가격 인상을 위해 재입찰로 넘어갔으며, 이 기간 동안

낙찰된 총액 약 1,600억엔 규모 사업의 태반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다.

공취위는 조본측의 담합에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조본 직원이 사실상 재입찰의 예정가격을 업자측에 전달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조본측의 행위가 담합의 실행을 용이케 하여 자유경쟁을 저해하였다고 하여, 입찰제도를 적절히 운용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다.

다만, 조본직원의 행위 그 자체는 업체에 의한 수주예정자 결정 후였으므로 "담합의 성립에 불가결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형사고발은 곤란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배제권고에 대하여 코스모석유 등 11개사는 "권고내용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논평하였다. 조본의 개선요청에 대하여 방위청 장비국은 "작년말부터 개선조치를 강구하여 왔으나, 이번 요청을 계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 1999. 11. 18,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휴대전화기 가격구속으로 IDO에 배제권고

「cdmaOne」용 휴대전화기의 판매를 둘러싸고 판매원인 일본이동통신(IDO)이 소매점의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하였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12월 9일, IDO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배제권고를 내렸다. 단말기의 판매가

격구속 등을 둘러싸고 휴대전화회사가 공취위로부터 배제권고를 받은 것은 5번째이다.

공취위에 따르면 IDO는 새로운 서비스인 「cdmaOne」의 상표를 붙인 휴대전화기를 금년 4월에 발매함과 동시에 계약사무수수료를 합한 판매가격을 2만엔 이상으로 하는 방침을 결정, 간토(關東)지방의 1도 6현과 야마나시(山梨)현의 소매점 약 28,000개 점포에 대하여 기종마다의 판매가격을 지시한 후,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출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 지시를 지키도록 하였다.

IDO는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기의 대부분을 약 300개가 되는 총판대리점에 판매하는데, 이때 도매가격은 소비자에게의 실제판매가격을 대폭으로 상회하기 때문에,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불,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공취위는 IDO가 장려금의 지불액을 억제하기 위해 신기종의 판매가격유지를 도모하였다고 보고 있다.

「cdmaOne」은 고음질이며 통화가 끊어지지 않는 등의 특징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IDO의 영업지역인 간토, 중부지구의 가입대수는 11월말 현재로 727,400대이다. 4월의 발매 이래 간토에서는 1대에 2만엔 이상의 가격이 유지되어 왔으나, 공취위가 IDO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7월 이후 인하판매가 시작되어, 현재에는 1대에 3,000엔에 판매하는 소매점도 있다고 한다.

■ 1999. 12. 10,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도로공단 발주공사 담합 295개사에 배제권고

일본도로공단이 혼슈(本州), 시코쿠(四國)에서 발주하는 도장공사를 둘러싸고 업체들이 담합을 반복하였다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12월 10일, 32개 도·부·현의 295개사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으로 배제권고를 하였다. 한번에 권고를 받은 업체수로서는 역대 최대라고 한다.

공취위에 따르면 이들 295개사는 늦어도 1995년 4월 이후 도로공단이 혼슈, 시코쿠에서 발주하는 교량, 고가교의 도장공사 중 3,000만엔 이상의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의 거의 전부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는 담합을 반복하였다. 1998년도까지 4년간의 수주총액은 217억엔을 상회하며, 340건의 입찰 중 담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3건뿐이었다.

공사는 지사, 관리국별로 발주되면 1건당 10개사 정도를 지명한다. 담합은 입찰에 지명되어도 수주하지 못한 회수를 「획득점수」로 하여 가장 많은 업자를 수주예정자로 하는 구도로, 295개사 중 139개사는 권고의 대상기간 동안에 수주실적이 없는 '순번대기' 상태였다.

295개사의 대부분은 금년 4월에 해산한 「일본도장기술연구회」의 회원이었다.

■ 1999. 12. 11, 일본경제신문